일제강점기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와 후지사와 가즈오*

정 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일제강점기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 현황

Ⅲ. 후지사와 가즈오와 발굴조사 자료

Ⅳ. 1942년 후지사와 가즈오의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

Ⅴ. 마치며

* 이 글은 2022년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일: 2022. 10. 4. 심사완료일: 2022. 10. 31. 게재확정일: 2022. 10.31.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는 1935년 이시다 모사쿠가 부여 군수리 사지를 조사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1942년부터 후지사와 가즈오가 부여에 체류하면서 많은 백제 불교 사찰유적을 발굴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조사 내용과 성과, 출토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자료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그가 작성한 일기 사본과 사진첩, 서신, 후속 논고 등을 수집하여 그가 1942년 부여에서 실시한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의 내용을 추적하였다. 본 논고는 이러한 비공식 자료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부여에 부임한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부소산 사지와 정림사지 조사의 과정과 내용, 성과, 그리고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파편적으로만 남아있던 일제강점기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도면, 그리고 출토 유물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일제강점기, 백제, 사찰유적, 정림사지

Ⅰ. 머리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한반도 내 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전역과 만주 등지에 소재하는 각종 문화재 및 민속자료,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과 변형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대부분의 고적조사는 조사 내용과 성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고된 자료도 매우 소략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와 출토 유물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보관되었다.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를 인수하여 보관·정리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1]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이 생산한 고적조사사업 관련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도면 등을 재정리 후 공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사는 재발굴조사 및 재보고서 작성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는 1935년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가 부여 군수리 사지를 조사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부여 정림사지의 오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등이 문화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선총독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하에 있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30년대부터 실시되었다. 군수리 사지 발굴조사 이후 부여 외리 사지, 동남리 사지, 가탑리 사지 등이 발굴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정림사지를 비롯하여 부소산 사지, 구아리 사지, 구교리 사지, 금성산 사지 등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가 소략하게나마 조사 내용과 성과가 공개된데 반해, 1940년대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가 부여에 체류하며 실시한 많은 조사들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발굴과 관련한 공식적인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조사 내용과 성과, 출토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공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서 실시된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의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군수리 사지, 2014년 동남리 사지, 2015년 정림사지, 2016년 구아리 사지, 2017년 부소산 사지, 2021년 외리 유적 등 총 6개 유적에 대한 6권의 재보고서를 발간하였다(부여박물관 2012, 2014, 2015, 2016, 2017, 2021).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도면 등을 수집하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조사자의 후속 논고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내

1)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info_museum.do

용과 출토품을 재정리하였다. 아울러 공식 자료는 아니나 조사 참여자 또는 관련자가 작성하거나 소장한 비공식 자료들 역시 당시의 정황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일본 동양문고의 우메하라 쓰에지(梅原末治) 고고자료와 도쿄대학 총합연구박물관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필드카드,[2] 정인성 교수가 입수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자료 등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세부적인 조사 경과와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1940년대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를 전담한 후지사와 가즈오의 1942년 일기 사본을 입수하였다. 아울러 부여 고적조사 사진첩과 1942년에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 등은 1940년대 백제 사찰유적 발굴조사의 공식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조사 내용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공개사업 과정에서 입수한 후지사와 가즈오의 일기, 사진첩, 서신, 후속 논고 등 비공식 자료를 토대로 1942년 부여에 부임한 후지사와 가즈오의 여정을 따라가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의 과정과 내용, 성과, 그리고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파편적으로만 소개되었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생산 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도면, 그리고 국립부여박물관이 보관 중인 출토 유물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일제강점기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 현황

백제 고지故地에 대한 초기 고적조사사업은 고구려, 신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유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쿄제대(東京帝大)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가 1914년부터 백제·신라·가야의 왕릉급 무덤을 조사하던 중, 1915년 7월 백제 사비시기 왕릉군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을 조사하였다. 당시 구로이타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분군 가운데 봉분이 가장 큰 중하총中下塚과 서하총西下塚을 조사하였다. 뒤늦게 부여에 도착한 세키노 다다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두 번째로 봉분이 큰 중상총中上塚과 능산리 일대에 분포하는 여러 백제 고분을 공동조사하였다(朝鮮總督府 1916). 1916년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위원회가 조직되고, 이후 능산리 고분군의 잔여분을 조사하기 위해 1917년 10월 야쓰이 세이이치

2) 도쿄제대 공학부 조가학과 교수인 세키노 다다시가 일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 세계 각지를 조사하며 작성한 기록물이다. 자료는 도쿄대학 총합연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DB 구축 후 온라인 공개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석탑 등 백제 지역 고적조사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부여를 다시 찾는다.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노모리 겐(野守建) 등으로 구성된 야쓰이 조사단은 남아있는 동하총東下塚, 동상총東上塚, 서상총西上塚 등을 조사하고, 고분군의 서편 구릉에서 4기의 고분을 추가로 발견하여 이 가운데 9호와 10호분을 조사하였다(朝鮮總督府 1920; 국립부여박물관 2018).[3] 그러나 부여지역 백제 왕릉급 고분 조사 성과는 경주, 평양, 나주 등지에서의 인상적인 조사 성과와 달리 일본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능산리 고분군 동하총에서 백제지역 처음으로 고분벽화를 발견하고 이를 일본 회화의 원류를 찾을 수 있는 자료이자 '천하일품'의 귀중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고 칭송하였으나(朝鮮總督府 1918), 기대했던 백제 왕실의 화려한 부장품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백제 왕릉급 고분은 이미 모두 도굴되어 목관의 조각과 부속품 일부만 수습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백제지역 고적조사가 고분 중심에서 불교 사찰유적 중심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192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은 담당 조직의 개편과 재정 긴축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기존에 조사된 성과를 정리하거나 고적의 보존과 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은 1931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구로이타 가쓰미는 각계의 후원을 얻어 조선고적연구회를 조직하고, 기존 고적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한반도 내 고적조사와 보고서 출판 등을 담당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고적조사를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경주연구소를, 평양부립박물관에는 평양연구소를 두었다. 1935년에는 고적조사의 범위를 백제 고지故地까지 확대하여 부여고적보존회가 운영하던 부여진열관 내에 백제연구소를 두어 부여, 공주, 익산 일대의 백제 유적을 조사하였다. 이는 기부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고적연구회는 1933년부터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금과 궁내성의 하사금을 확보하였고, 1934년부터는 이왕가의 하사금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오영찬 2011: 239-241). 그러나 경비 절감을 위해 전임 연구원을 두는 대신, 수시로 박물관 및 대학의 연구 인력을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고적조사를 진행하였다(이병호 2015: 68-69).

1935년 동경제실박물관의 이시다 모사쿠는 사이토 다다시(齊藤忠) 등과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군수리 사지를 발굴조사하고, 이듬해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수리

3) 국립부여박물관은 조사 당시 제도된 동하총 석실 실측 도면과 노모리 겐이 작성한 야쓰이위원 조사 수집품 목록, 야쓰이 세이이치 고적조사 복명서, 그리고 1920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忠淸南道扶餘郡夫餘面 陵山里第二號墳' 표석 유리건판 사진 등을 검토하여, 1917년 조사가 10월 말부터 11월에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능산리 고분군 서쪽에서 4기의 고분를 추가로 발견하고 기 발견된 6기의 고분에 이어 7~10호로 번호를 부여했다. 이 4기의 고분군을 '능산리 서고분군'이라고도 칭한다.

사지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石田茂作 1937; 국립부여박물관 2012). 당시 조사에서 탑지 기단과 금당지의 초석 등 건물지의 규모와 배치 등을 확인하고 불상과 기와를 비롯한 다수의 유물을 수습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군수리 사지의 가람배치와 출토 유물이 일본 아스카 시대의 시텐노지(四天王寺), 호류지(法隆寺) 등과의 유사한 점을 들어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 주었다는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문헌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 선전되었다(衫三郎 1941: 10).[4]

1939년 3월 8일 조선총독부는 부여 부소산에 부여신궁을 건립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3일에는 부여면과 규암면 일대에 부여신궁 조영을 위한 '대신도大神都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시하였다(總督府文書科 1939: 2-11; 조선일보 1939. 6. 19.).[5] 이와 같이 부여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성지聖地'로 만들려는 신도神都 건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여 시내에 건설공사와 그에 수반된 구제발굴조사도 증가하게 되었다. 부여 동남리 사지는 부여신궁 조영이 본격화되면서 동남리 일대에 대한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1939년 4~5월에 발굴되었으며, 가탑리 사지는 중견청소년수련소를 짓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朝鮮古蹟硏究會 1938; 국립부여박물관 2014). 이 시기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朝鮮古蹟硏究會 1940; 국립부여박물관 2019) 등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백제 불교 사찰유적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본 초기 불교사원의 기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백제와 일본 초기 불교 사원간의 공통점을 통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식민지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李炳鎬 2011: 140-143).

1942년 7월 후지사와 가즈오가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에 부임하면서 부여지역의 고적조사사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전까지 조선고적연구회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해 수시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이나 동경제실박물관의 관원 또는 도쿄제대, 교토제대(京都帝大) 등의 교관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였다. 군수리 사지와 동남리 사지 등을 발굴조사한 동경제실박물관의 이시다 모사쿠 역시 한 달 정도 출장 형식으로 부여에 와서 조사했을 뿐 상주하지는 않았다(이병호 2016: 174). 그러나 후지사와의 부임 이후에는 그가 부여에 상주하며 부여지역의 모든 고적조사를 전담하였다. 후지사와는 1942년 8월 하순 부소산 사지를 시작으로 구아리 사지, 정림사지, 구교리 사지, 금성산 사지 등 광복 이전까지 부여지역의 다양한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이병호, 2016: 175~176에서 재인용.
5) 문혜진, 2021: 560에서 재인용.

표 1. 일제강점기 부여지역 백제 사찰유적 조사

조사 연도	유적명	조사자	재발굴조사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
1935・36년	군수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	2005~2011년	2012년
1937년	외리 사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2021년
1939년	동남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	1994년	2014년
1939년	가탑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		
1942년	부소산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 요네다 미요지	1980년	2017년
1942년	구아리 사지(심초석)	후지사와 가즈오	1992~1993년	2016년
1942년	정림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79~1980년 1983~1984년 2008~2011년	2015년
1943년	구교리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43년	금성산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89년	
1943년	구아리 사지(부여경찰서)	후지사와 가즈오	1992~1993년	2016년

Ⅲ. 후지사와 가즈오와 발굴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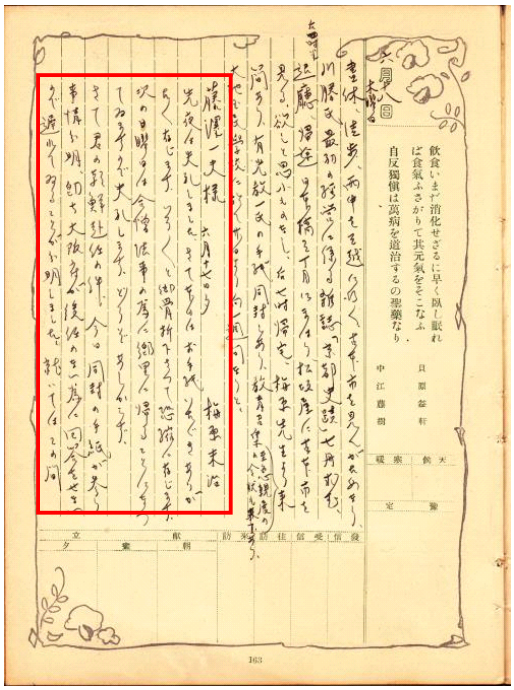
후지사와 가즈오는 1942년에 부임한 이래 부여의 모든 고적조사사업을 전담하면서 많은 백제 불교 사찰유적을 조사하였으나, 그동안 그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가 부여에서 활동한 1940년대는 태평양전쟁의 발발 등으로 조선고적조사사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였으며, 그의 주 조사 대상이었던 백제 불교 사찰유적은 다른 지역 고분유적 등에 비해 대중과 학계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실시한 많은 고적조사의 내용과 성과가 충실히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발굴조사한 정림사지는 고적조사사업 초기부터 사찰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매우 컸던 유적이며, 부소산 사지에서는 백제 불교 건축 및 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다수 출토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사 보고서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광복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고, 후속 연구와 저술활동도 다른 일본인 조사자들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후지사와 가즈오는 부여에 부임하기 이전, 1940년부터 일본 오사카부청의 사적국보계에 재직 중이었다(국립부여박물관 2015: 20). 그는 처음으로 편년 자료로서 기와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일본 고대 기와의 전문가로(高正龍 2004: 21), 이러한 연구 경험은 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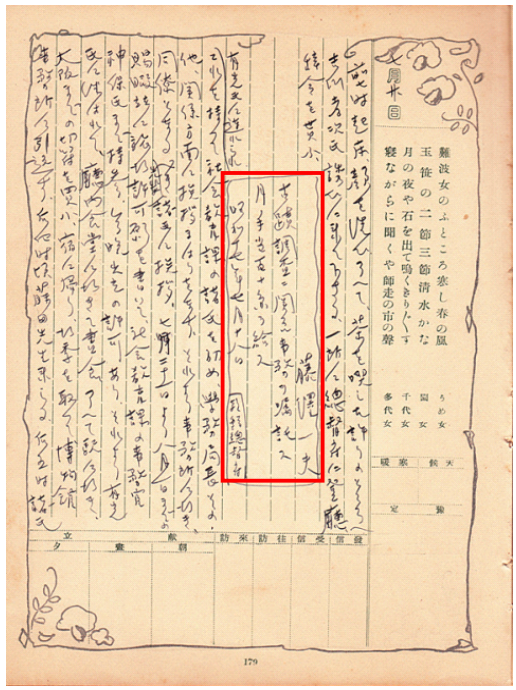
부여지역 백제 사찰유적 조사자로 선정되는 데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가 1942년 7월 18일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으로 임명된 이후(도판 2), 부여지역의 모든 고적조사사업은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조선행을 택한 것은 일본 고대 기와 연구자로서 한반도 고대 기와 연구에 대한 학문적 욕구도 있었겠으나, 교토제대의 교수이자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중심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우메하라 쓰에지의 권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藤澤一夫 1995: 144).[6] 후지사와는 자신의 일기에 조선총독부박물관장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가 우메하라 쓰에지에게 보낸 서신, 이후 우메하라가 자신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후임자 선정문제로 후지사와의 조선행이 지체되자 아리미쓰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서신을 우메하라에게 보냈고, 우메하라는 빨리 조선행에 오를 것을 종용하는 서신을 후지사와에게 보낸다. 그리고 우메하라는 서신의 말미에 자신이 쓴 편지를 나중에 돌려줄 것을 후지사와에게 당부하였으며, 이는 인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도판 1). 이를 통해 우메하라가 후지사와의 조선행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인사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후지사와가 7월 18일 경성에서 사령장을 받고 부여 부임 준비와 신변 정리를 위해 잠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인물 역시 우메하라였다. 후지사와는 우메하라의 자택에서 조선에서의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주의사항'을 들었다고 일기에 적고 있다. 후지사와는 부여 부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소산 사지와 정림사지의 조사 경과와 내용을 서신으로 보고하였으며, 유구 실측 도면과 출토품 탁본 자료 등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또한 서신에 자신이 우메하라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어 우메라하가 후지사와에게 끼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장이었던 아리미쓰 교이치는 후지사와의 부여 부임과 이후 고적조사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였다. 후지사와와 함께 부여의 여러 유관기관을 찾아가 후지사와의 고적조사와 부여 생활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발굴조사 착수 신고를 하였다. 또한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아리미쓰 역시 1937년에 부여 외리 사지를 조사한 바 있어 그의 백제 사찰유적 조사와 부여 생활 경험은 모든 것이 처음인 후지사와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6) 李炳鎬, 2011: 13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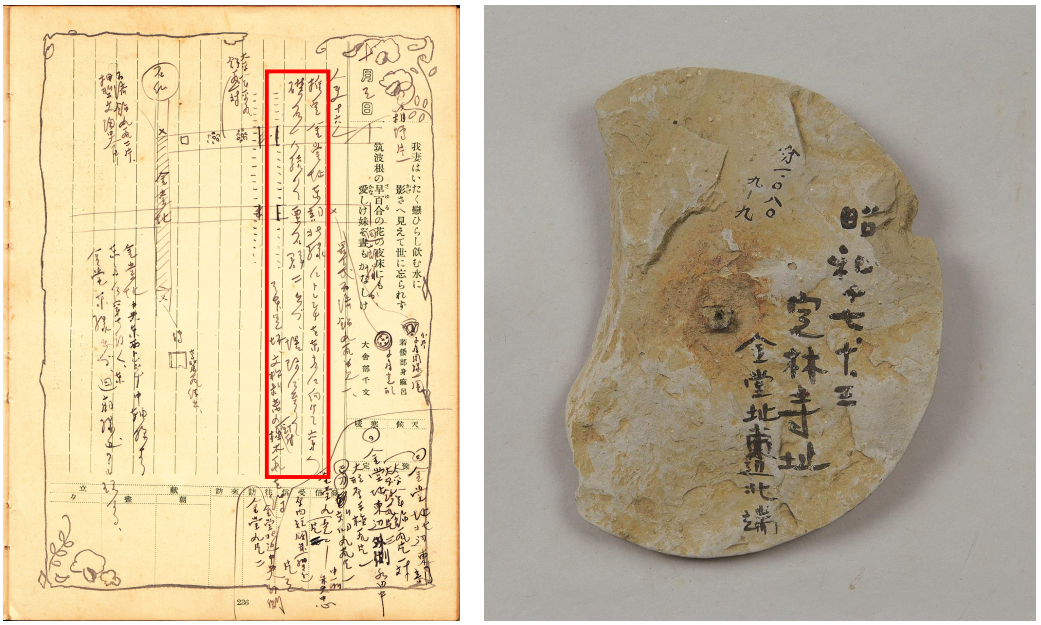
도판 1. 후지사와 일기 속 우메하라 서신 내용



도판 2. 후지사와 일기 속 사령장 내용

후지사와는 1942년부터 부여지역의 모든 고적조사를 전담하였으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에 그가 조사한 백제 불교 사찰유적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남은 조선총독부 생산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 도면의 사본, 그리고 몇 편의 후속 연구(藤澤一夫 1949, 1971)에서 소개된 소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추가적인 조사 자료에 대한 학계의 갈증은 매우 컸다. 다행히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지사와 가즈오의 유족과 접촉하였고, 유족 측으로부터 후지사와가 1942년 6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작성한 일기의 사본을 전달받았다(도판 1, 2). 일기는 그가 조선에 오기 전 오사카에서의 상황과 입국 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부여에서의 건강과 심리 상태 등 개인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홀로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발굴조사를 시작해야 했던 젊은 연구자의 기대감과 긴장감, 불안감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기에는 부여 부임 과정과 이후의 행보, 발굴조사 준비, 발굴조사 경과와 내용, 현장 조사 방법, 출토 유물 정보, 접촉 인물 등 그가 1942년에 실시한 정림사지와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내용도 비교적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후지사와는 발굴조사 중 거의 매일 일기를 썼으며 당일의 현장조사 내용과 수습 유물 정보 등을 기록하였다. 일기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제강점기 정림사지 발굴조사 출토품으로 알려진 유물과 비교 검토하였다. 일기에 따르면 1942년 10월 3일, 후지사와는 정림사지의 금당지 동북쪽 가장자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양이 지워지고 못이 박힌 연목와'를 수습하였다(도판 3-1). 오랫동안 국립부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 가운데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도판 3-2). 이 연목와(부여1080-9)는 후지사와의 기록처럼 문양 면이 박리되고 중앙에 철제 못을 박았던 흔적이 확인된다. 뒷면에는 조사 당시에 작성한 '소화십칠.십.삼. 정림사지 금당지동변북단'이라는 묵서도 확인되어 후지사와 일기 속 연목와임을 알 수 있다. 11월 21일에는 정림사지 강당지에서 와적기단을 발견하고 강당지 북쪽 서반부西半部를 노출시키던 중, 완형의 벽돌을 수습하였다. 부여박물관에는 정림사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민무늬 벽돌 1점이 있는데, 해당 유물의 뒷면에서 '정림사 강당지북방'이라는 묵서를 확인할 수 있다(도판 4).



도판 3. 1942년 10월 3일 후지사와 일기(좌)와 정림사지 출토 연목와(우)

비록 유물에서 수습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출토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고 다른 완형의 벽돌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기 속 벽돌이 바로 이 유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9월 2일 부소산 사지를 조사하던 후지사와는 금당지 북동쪽 모서리에서 여러

수막새와 함께 '와기 이부배' 1점을 수습하였다. 이와 부합하는 유물로 부소산 사지에서 출토된 손잡이가 달린 등잔이 있다(도판 5). 등잔의 뒷면에는 '십칠.구.이. 부여○○사 금당지 ○북 부근'이라는 출토 위치와 수습일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연호가 누락되고 사찰 이름과 출토 위치 정보 글씨는 잘 보이지 않으며 등잔 대신 '이부배'로 명명하고 있으나, 일기 속의 유물과 손잡이 달린 등잔이 동일한 유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도판 4. 1942년 11월 21일 정림사지 출토 추정 민무늬 벽돌(좌) 및 출토 정보(우)

도판 5. 1942년 9월 2일 부소산 사지 출토 추정 등잔(좌) 및 출토 정보(우)

도판 6. 1942년 정림사지 발굴조사 당시 석조여래좌상 실측(좌) 및 금당지 조사 모습(우)

12월 4일 일기에는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실측을 완료하고 이어 금당지를 실측했으며, 탑 위에 올라 금당지의 전경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일제강점기 정림사지 발굴조사 유리건판 사진 가운데 후지사와의 일기 속 사진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판 6-1]은 석조여래좌상을 실측하기 위해 불상에 사다리를 기대어 불상의 높이를 측정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판 6-2]는 높은 곳에 올라가 금당지 조사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 인물은 금당지에서 노출된 석렬을 실측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의 사진 촬영은 오직 오층석탑 위에 올랐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이 사진들은 일기 내용과 같이 정림사지 발굴조사 막바지인 12월 4일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후지사와 일기 속 정보들은 신뢰도와 활용도가 매우 크며, 그동안 파편적으로 수집된 여러 공문서, 사진, 도면, 출토 유물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조사 내용과 출토품 정보를 더욱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후지사와의 일기와 함께 그의 고적조사 사진첩 사본도 함께 입수하였다(도판 7). 후지사와는 자신이 수습한 주요 발굴품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사진첩에 정리한 후 간단히 출토 정보 등을 기입했다. 후지사와가 보관하던 사진첩은 1971년에 초대 국립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 선생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연재사업기념회에서 보관 중이다(국립부여박물관 2017: 35). 후지사와가 수습한 많은 발굴품은 출토 맥락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섞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토 유물의 제한적 정보와 오류로 인해 후속 연구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전시 및 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진첩과 그 속에 담긴 메모를 통해 그가 수습한 발굴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후지사와는 발굴조사 중,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우메하라 쓰에지에게 서신을 보내 조사 경과와 내용, 나름의 성과 등을 보고하였다. 이때 유구 도면과 출토품 탁본 등 발굴자료가 우메하라에게 전달되었느데, 이러한 자료는 현재 국내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확보한 후지사와의 일기와 사진첩, 그리고 그가 우메하라와 주고받은 서신 등은 1942년에 실시된 정림사지와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의 실상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도판 7. 후지사와 가즈오 고적조사 사진첩 속 구아리 사지 출토품

일기와 서신 내용 등을 토대로 1942년 후지사와가 한반도에 건너온 이후 그의 행적과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 준비 과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1942년 7월 18일 부산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후지사와는 바로 경성으로 이동하여 7월 20일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 사무 촉탁 명령을 받는다.[7] 이후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와 조선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데, 이때 우메하라에게 조선에서의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고적조사사업의 주의사항을 듣게 된다. 이후 8월 4일에 부산을 통해 재입국한 후지사와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아리미쓰 교이치와 함께 부여군청과 부여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부여에서의 생활과 고적조사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실견하고 주변에서 '대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 기와를 수습하였다. 이후 서울에 잠시 상경했다가, 8월 26일 아리미쓰와 함께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정림사지 발굴조사 착수 신고를 한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림사지 일대의 지형을 측량하고 1/200 평면도를 만든 후 기준점을 설정하는 등 모든 조사 준비를 완료했다. 즉, 한반도에 건너온 이후 그의 모든 행적은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7) 후지사와가 사령증을 수령한 것은 1942년 7월 20일이나, 실제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 사무 촉탁으로 임명된 것은 7월 18일부터이다.

Ⅳ. 1942년 후지사와 가즈오의 백제 불교 사찰유적 조사

1.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후지사와 가즈오는 1942년 8월 29일까지 정림사지 발굴조사 준비를 완료했으나, 8월 30일 발굴조사의 첫 삽을 뜬 곳은 정림사지가 아닌 부소산 중턱의 한 건물지였다. 일기에는 *'평제탑 주변을 조사하기 전에 오늘부터 연습 삼아 부소산 중복의 도로 서쪽에 있는 한 유적의 발굴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일본 고대 기와 전문가였으나, 조선 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경험이 없었기에 정림사지와 같은 중요 유적을 첫 발굴조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정림사지의 오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은 이미 고적조사사업 초기부터 주요 고적으로 지정된 후 꾸준히 정비되어, 당시 부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또한 대중과 학계는 정림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고대 한반도와 일본 불교사찰 건축의 친연성을 확인하고 일본 고대 불교문화의 원류를 보다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8]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신궁 건설공사 중 부소산 중턱에서 백제 건물지를 발견하였고, 정림사지를 발굴조사하기에 앞서 연습 삼아 이 건물지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백제 건물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습득하고 정림사지 발굴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일기와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에도 밝혔듯이 처음에는 이 유적을 부소산 남사면에 자리한 백제 왕궁의 건물 터 가운데 하나로 인식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유적은 백제 불교 사찰 터로 밝혀졌으며, 이 유적은 그동안 부여 서복사지 등으로 알려진 부소산 사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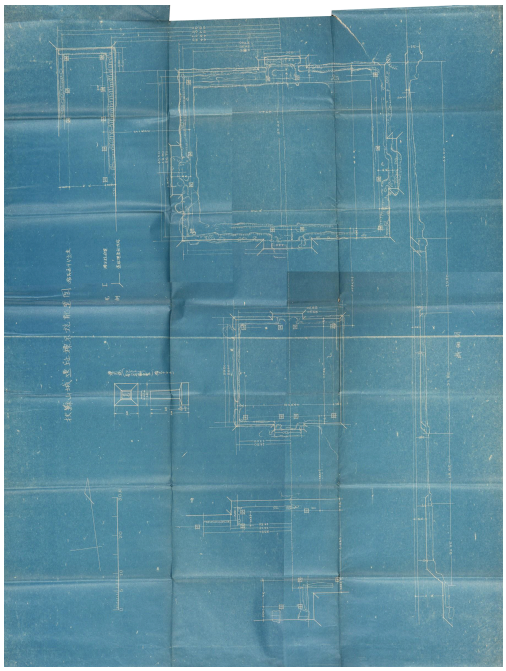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에는 후지사와와 함께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가 참여했다. 니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요네다는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으로 근무하며 석굴암 측량을 비롯한 다양한 고적조사를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1937년에 이미 아리미쓰 교이치와 함께 부여 외리 사지를 발굴하였고(朝鮮古蹟硏究會 1937; 국립부여박물관 2021), 1942년에는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측량하여 보고하는 등(米田美代治 1942) 부여지역의 백제 사찰유적 고적조사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요네다는 기와 중심의 유물 연구에 집중하고 백제 불교 사찰유적 발굴조사 경험이 없었던 후지사와에게 최적의 조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었다.

8) 후지사와가 부소산 사지 조사 중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가 정림사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신문의 오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기대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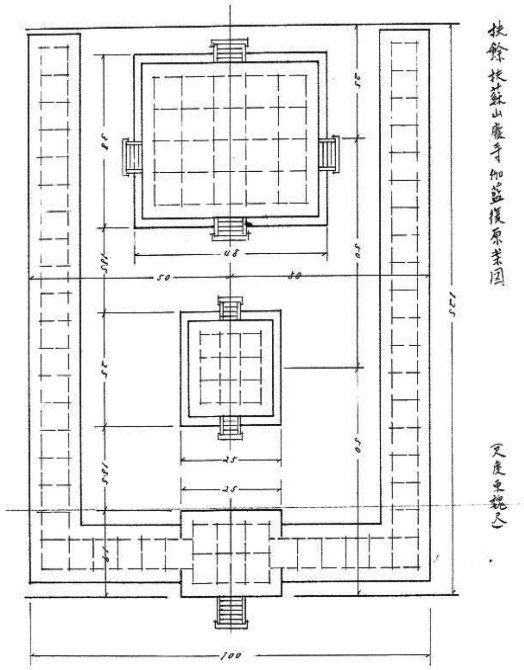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24일간 진행하였으며, 현장조사는 22일 정도 실시되었다. 발굴은 트렌치 조사 후 유구의 흔적을 따라 주변부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먼저 처음 유적 발견 당시 왕궁 건물 터로 인식하였던 금당지 일대를 조사하고, 남쪽에서 탑지 흔적을 발견한 후에는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중요 유구와 유물을 발견할 때는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조사 마무리 단계에는 유구의 평면도 등을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 부소산 사지는 중문, 탑, 금당이 남-북 축으로 일직선상에 배치된 1탑1금당식 백제 사찰로 밝혀졌다. 후지사와는 조사 완료 다음날인 9월 23일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9]에서 부소산 사지를 일본의 사천왕사식 사찰로 규정하고, 부소산 사지 금당과 탑의 이중 기단은 일본 호류지와 동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회랑지에서 와적기단을 조사한 후 일본 고대 사찰에서 확인되는 와적기단의 기원을 백제로 추정하였다(국립부여박물관 2017: 38-39). 그는 강당지를 찾기 위해 금당 뒤편을 조사하였으나 결국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1980년 국립부여박물관 등이 실시한 부소산 사지 재발굴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申光燮, 1996: 15-81). 부소산 사지는 강당과 승방 시설 없이 탑과 금당 등 예배 중심 건물만 조영된 점, 그리고 백제 왕실의 후원인 부소산 내에 입지한 점 등에서 백제 왕실 전용 예배공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지사와는 이 사찰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찰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 등은 비교적 명확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작성한 부소산 사지 평면도는 '부소산성 유지 표시항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국립부여박물관 2017: 43-44), 이는 유적 보존을 위해 유구의 위치를 따라 말뚝을 박고 후지사와 조사단이 작성한 도면 위에 이를 표시한 것이다(도판 8).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부소산 사지 가람 복원도가 1944년 10월 16일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메하라에게 전달되었다(도판 9).[10]

후지사와는 중요 유물이 출토될 경우 이를 비교적 상세히 일기에 기록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출토 양상 등을 약실측하였다. 이에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부소산 사지의 주요 유물들의 출토 맥락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부여 임강사지 출토품과 함께 극히 일부만 남은 백제 벽화 편 자료로,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소산 사지 벽화 편들은 그의 일기와 사진첩을 통해 본래 금당을 장식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처음으로 백제 불교사찰을 장식한 벽화 편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후지사와는 발굴조사 중 긴급히 이를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에 진열하여 공개했다.

9) 동양문고 우메하라 고고자료 10664
10) 동양문고 우메하라 고고자료 10665



도판 8. 조선총독부 생산 부소산성 유지 표시항 배치도



도판 9. 우메하라에게 보낸 부여 부소산 사지 가람 복원도

또한 백제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끼리 두상을 비롯한 여러 소조상을 목탑지에서 발견하였으며(도판 10), 금당지에서 발견한 석제 마루끝장식과 대형 치미 등은 백제 사찰건축 지붕장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도판 11).[11] 고대 기와 연구자답게 후지사와는 부소산 사지에서 수습한 연꽃무늬 수막새를 유구별로 분류하였다. 탑지에서는 8엽 연판에 자방에는 연자 18개가 불규칙하게 솟아 있는 형식의 수막새를 다수 수습하였고, 금당지에서는 돌출된 자방 위에 8개의 연자가 있으며 7개의 연판 가운데에 꽃술과 같은 장식 돌기가 있는 수막새를 발견하였다(도판 12). 그리고 후지사와는 목탑지 수막새가 금당지 수막새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2] 본래 정림사지 발굴을 위한 연습조사 성격이었던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학술적 성과와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당시 평양박물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현장을 방문하였고[13] 조사 내용과 성과가 신문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다(아사히 신문 1942. 9. 5.).[14]

---

11) 그는 석제 마루끝장식과 연꽃무늬가 장식된 치미 편을 탁본한 후 이를 정림사지 발굴조사 중인 1942년 11월 12일에 우메하라에게 보냈다.(동양문고 우메하라 고고자료 10545)

12) 일기에는 연판 수를 기준으로 8엽 수막새와 7엽 수막새로 구분된다고만 언급하였으나, 9월 24일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에 탑지와 금당지에서 각각의 수막새를 발견하였고 탑의 수막새가 더 선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도판 10. 부소산 사지 출토 벽화편(1, 2) 및 소조상 편(3, 4)

도판 11. 부소산 사지 출토 마루끝장식기와 및 치미(탁본은 후지사와가 우메하라에게 보낸 자료)

도판 12. 부소산 사지 출토 연꽃무늬수막새(좌: 탑지 출토, 우: 금당지 출토)

13) 고이즈미 아키오는 9월 13일 부소산 사지 현장을 시찰하고 다음날에는 군수리 사지 등을 답사했다.
14) 國立扶餘博物館, 2010: 170에서 재인용.

1942년 9월 22일까지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를 마친 후지사와 조사단은 9월 23일 부소산 사지 원경 사진을 촬영하고 산을 내려오던 중 구아리 금융조합 창고가 있던 자리 남쪽에서 심초석을 발견하였다(도판 13). 이 일대에 대한 조사는 9월 27일까지 이어졌으나, 9월 24일 조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조사는 단 4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아리 사지 조사가 매우 소략하게 마무리된 이유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으나 후지사와는 처음부터 정림사지 발굴에 대한 기대가 컸으므로 우연히 발견된 구아리 사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크게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국립부여박물관 2016: 22). 이에 정확한 조사 지점과 범위,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심초석과 인부가 깨뜨렸다는 심초석 뚜껑, 인근에서 수습한 기와와 탑의 상륜부 편 등 수습 유물에 대한 정보만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후 후지사와는 이듬해인 1943년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초석 발견 지점 인근의 부여경찰서 유적에서 기와포함층을 추가로 조사하였다(국립부여박물관 2016: 31).

도판 13. 구아리 사지 심초석의 1942년 발견 모습(좌)과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전시 모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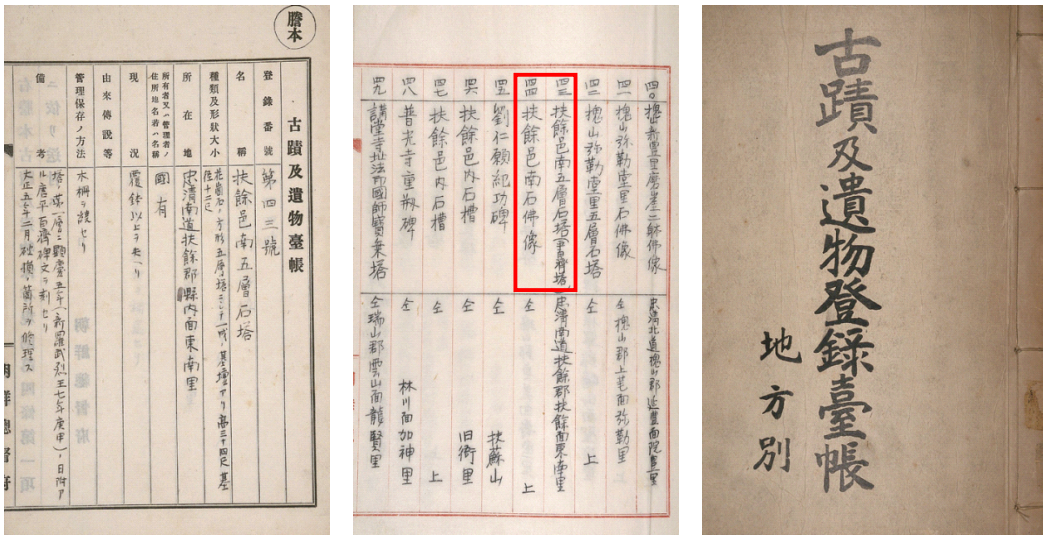
2. 후지사와 가즈오의 정림사지 발굴조사

1942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소산 사지와 구아리 사지를 조사한 후지사와 조사단은 드디어 9월 28일부터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정림사지는 백제의 핵심 유적이자 일본 고대 불교문화의 원류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적의 중요성과 조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굴조사는 1930년대 부여 군수리 사지, 동남리 사지, 외리 사지 등이 조사된 이후인 1942년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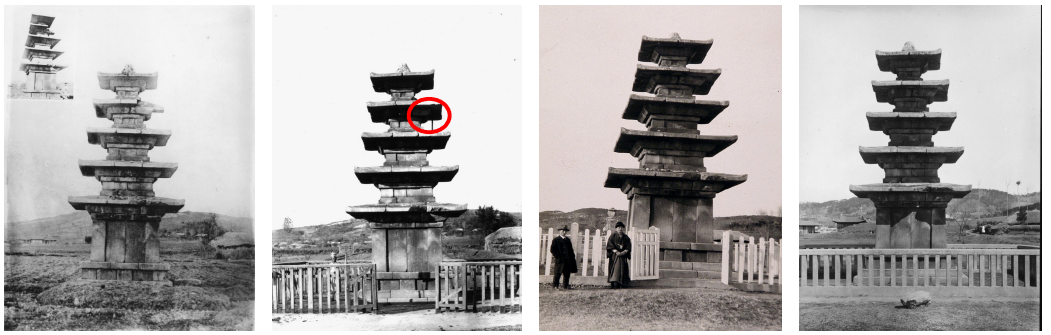
도판 14. 일제강점기 정림사지오층석탑(좌)과 1층 탑신부 명문(우)

일본인들이 정림사지의 오층석탑에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이 석탑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가운데 하나이자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의 백제 석탑인 점도 있겠으나, 석탑 1층 탑신부에 새겨진 당唐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기공문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의 존재 때문이기도 했다(도판 14). 당은 백제 공략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소정방의 공적 등을 당시 백제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정림사의 석탑에 새긴 것이다. 이에 일본인들은 석탑 주변에서 '대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가 새겨진 평기와를 여러 차례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석탑을 평제탑平濟塔 등으로 불렀으며, 비문 내용을 통해 조선이 당한 수탈의 역사를 강조하고 조선 민중에게 패배 의식을 심어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09년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처음 조사한 세키노 다다시는 소정방의 기공문을 탁본하고 석탑의 조성연대를 백제가 멸망한 660년으로 비정하였으며, 오층석탑을 '갑甲'급 고적, 석조여래좌상을 '을乙'급 고적으로 분류하였다. 1916년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제정되면서 한반도에 산재한 중요 유적과 유물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때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정림사지의 오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을 각각 43호와 44호로 등록하여 보호와 수리를 실시하였다(도판 15). [도판 16]는 오층석탑을 1909년, 1920년 전후, 1928년, 1936년에 각각 촬영한 것이다. 1909년과 1920년대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1916년에 탑의 4층 옥개석을 수리된 것을 알 수 있으며,[15]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시설을 보완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이 정림사지오층석탑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5) 오층석탑의 4층 옥개석은 1916년 2월에 수리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매일신보 1916. 2. 6.(전지혜, 2021: 222)).



도판 15. 192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생산 '고적 및 유물 대장'



도판 16. 일제강점기 정림사지오층석탑의 보호시설(①1909년, ②1920년 전후, ③1928년, ④1936년)

1939년 10월 31일 조선총독부 고시(제900호)에 따라 부여신궁 조영과 함께 부여면과 규암면의 일부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부여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림사지오층석탑 일대는 부여신궁의 외원과 연결되는 공원 및 학교부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충청남도는 1941년 정림사지오층석탑 인근을 공원화하고자 계획도를 첨부하여 조선총독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도판 17).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정림사지오층석탑 일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제의 사찰 터로 영구히 보존이 필요한 유적이며, 지하의 현상 변경이 불가하므로 발굴조사를 선행한 이후 공원 공사 실시를 명령했다.[16] 이에 정림사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긴급히 추진되었고, 이를 위해 후지사와가 부여에 급파된 것으로 보인다. 후지사와의 일기에

16) 조선총독부 생산 공문서 '부여 평제탑 부근 공원 공사 건(A169-001-003~006)' 참조

서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1942년 12월 중순에 다소 무리하게 마무리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 배경에 부여 신도건설 사업과 연동된 정림사지 공원 건립 사업 추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행이 지체되고 있던 후지사와에게 빨리 움직일 것을 종용하였던 우메하라의 서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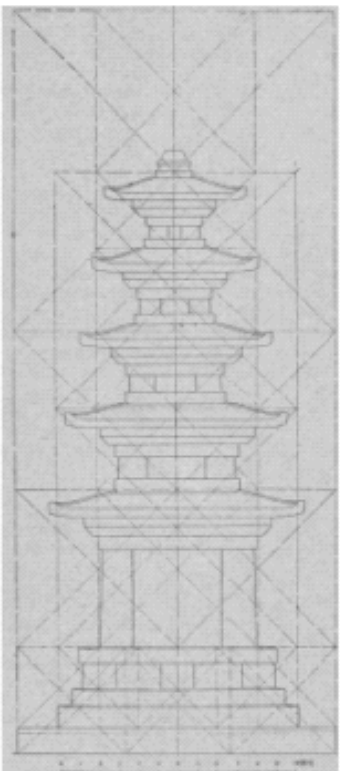
도판 17. 정림사지오층석탑 일대 공원화 계획도

이와 같이 정림사지 발굴조사는 부여를 내선일체의 성지로 만들려는 조선총독부의 신도 건설 계획의 하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였으며,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가지는 학술적 중요성과 의미는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작성한 '공원 건립 계획도' 속 정림사의 모습에서 사찰의 원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은 공원을 장식하는 조형물에 불과하였다. 결국 발굴조사가 불완전하게 마무리된 것도 제한된 일정 안에서 공원화 구역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9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17] 본래 정림사지 발굴조사는 부소산 사지와 마찬가지로 요네다 미요지와 후지사와 가즈오가 공동 조사할 예정이었다. 요네다는 후지사와가 부여에 파견되기에 앞서 이미 1942년 5월에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측량하고 석탑 기단부의 하부 일부를 굴착하여 조사하였다(도판 18)(米田美代治 1942: 15~19).[18] 이는 본격적인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앞서 석탑 조사를 완료하여 석탑의 성격과 축조방법 등을 규명하고, 이후 본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등 새로운 유구 조사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본 발굴조사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건축을 전공한 요네다가 유구 조사와 정리를, 기와를 전공한 후지사와가 유물 조사와 정리를 담당할 계획이었다.[19]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후지사와의 부여 부임 배경은 정림사지 발굴조사에서 요네다의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출토 유물을 정리하는 보조적 역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요네다와의 공동조사로 백제 사찰유적 발굴조사 경험을 축적한 뒤, 향후 폭증하는 부여지역의 고적조사 사업을 후지사와가 전담하는 구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네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서 이러한 발굴조사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후지사와가 전체적인 발굴조사를 지휘하고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등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조사원이 일정 기간씩 부여에 파견되어 후지사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스기야마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고건축학자로, 일본 법륭사보존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1935년 3월부터 한반도의 고건축 보존공사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는 요네다 미요지가 황해도 황주군의 성불사 응진전 수리공사 사무소 조수로 가게 되면서 그를 대신해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한반도의 다양한 고건축물 수리 및 조사에 참여한 인물이다(한

17) 부여박물관이 소장한 정림사지 출토품 가운데에는 쇼와 18년과 쇼와 19년이라고 묵서된 유물도 있어서 1943년과 1944년에도 정림사지 일대가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없어 불명확하다.
18) 전지혜, 2018: 218-220에서 재인용.
19) 후지사와는 부소산 사지 조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9월 24일에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정림사지 조사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79~80쪽; 서효원 2018: 215~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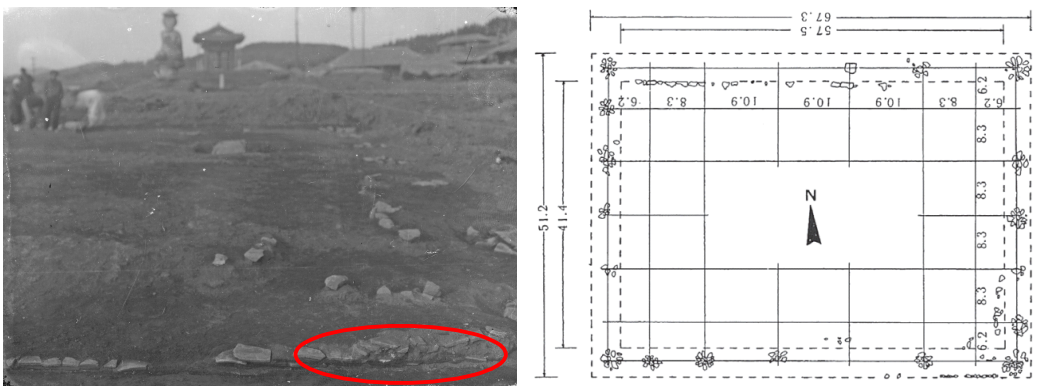
도판 18. 정림사지오층석탑 입면실측도

발굴조사는 12월 18일까지 82일간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발굴조사가 대부분 한 달 안에 마무리된 것에 비하면 이와 같은 긴 조사일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는 60일 정도 실시되었는데, 이는 날씨 문제와 함께 요네다 미요지의 장례, 후지사와의 건강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아리미쓰 교이치는 수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발굴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 안에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건강 문제로 후지사와가 현장에 나갈 수 없을 때는 스기야마를 파견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조사 마지막 단계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유적 사진 촬영과 실측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스기야마는 요네다를 대신하여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부여에 상주하며 유구 조사를 전담하는 대신 출장형식으로 후지사와의 조사를 지원하는데 머물렀다[20]. 그는 광복 이후 고적조사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고건축 문화를 비교하는 등 한반도의 고건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의 논고에서 일부 정림사지 가람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이해는 후술할 후지사와의 인식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발굴조사 일정과 지속적인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관리 및 지원 등에서 정림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심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1942년 안에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겼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결과, 유적은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축 상에 일직선으로 배치된 1탑 1금당 백제식 가람으로 밝혀졌다. 후지사와는 이를 사천왕식 가람으로 칭하였으며, 단탑계식 사찰의 조형祖形으로 판단하였다(藤澤一夫 1949: 129, 1971: 52~53). 후지사와는 금당과 강당, 회랑, 서건물지, 북편 건물지(북승방지) 등에서 와적기단을 발견하여 사역 내 주요 건물이 와적기단 위에 조성된 것을 파악하였다. 금당지에서 조사한 와적기단은 광복 이후에 실시한

20) 후지사와 일기에 따르면 스기야마는 정림사지 발굴조사 현장에 두 차례 방문하여 각 일주일 정도씩 머물며 건물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지원 이후 그는 경성이 아닌 경주로 향했는데, 당시 그가 정림사지 외에도 여러 고적조사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재발굴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금당에서 와적기단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21] 이러한 금당지 와적기단의 흔적은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뿐 아니라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비조사발굴조사보고서』(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1958: 43-44)에 수록된 정림사지 금당지의 평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판 19-2). 이 도면은 그가 정림사지 발굴조사 중인 1942년 11월 30일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금당지의 1/50 평면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평면도를 통해 비조사의 동·서금당지와 정림사지 금당지에서 확인되는 이중기단의 유사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병호 2015: 296). 아울러 후지사와는 강당의 서쪽에서 와적기단을 갖춘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당 동쪽에도 동일한 건물이 대칭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당 북쪽에서도 와적기단이 있는 또 다른 건물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1971년 논고에서 이를 식당으로 명명하였다(藤澤一夫, 1971: 52-53). 따라서 전체적인 정림사지 가람배치에 대한 인식은 2008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정림사지 재발굴조사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도판 20)(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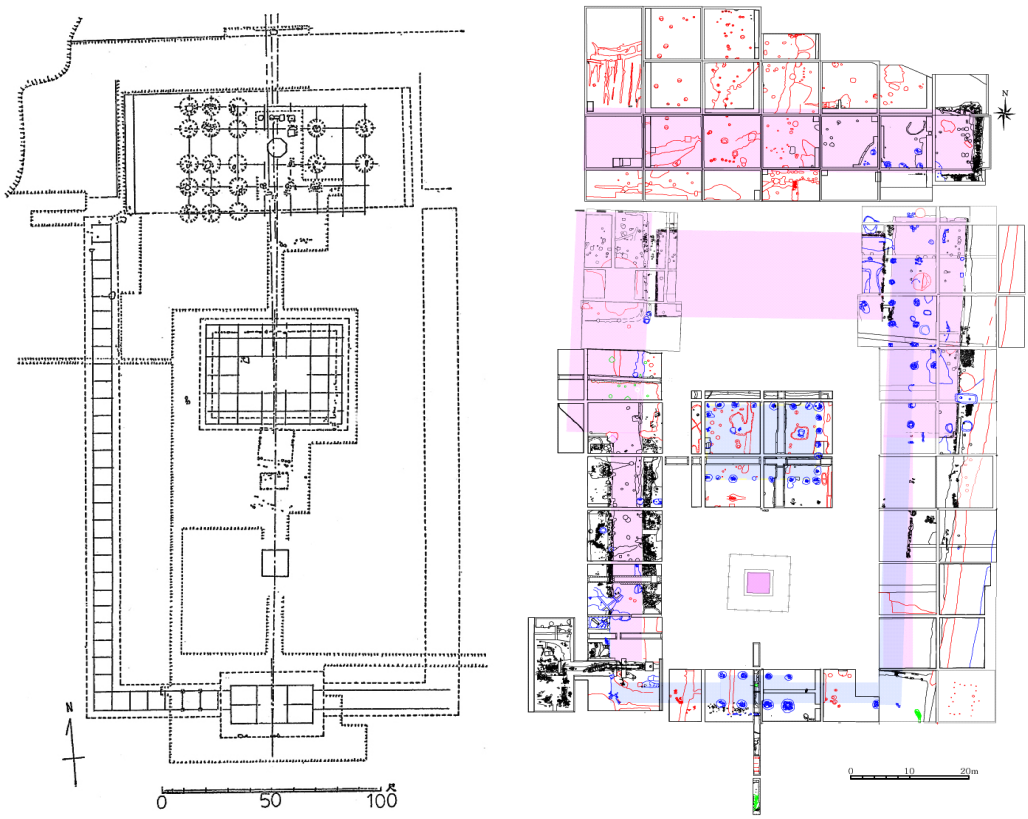


도판 19. 정림사지 금당지의 와적기단(좌: 1942년 촬영 유리건판 사진, 우: 금당지 평면도)

다만 2008년 재발굴조사에서는 동·서건물지의 남쪽 경계가 금당의 중간 정도까지 이어진 세장방형 구조로 인식한데 반해(도판 20-2), 후지사와는 동·서건물지의 남쪽 경계를 강당의 남쪽 끝과 가까운 곳에 놓았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형태 역시 방형 또는 장방형 구조로 인식하고 있어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도판 20). 후지사와가 이와 같이 인식한 이유는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21-1]은 1942년 정림사지 강당지와 서건물지 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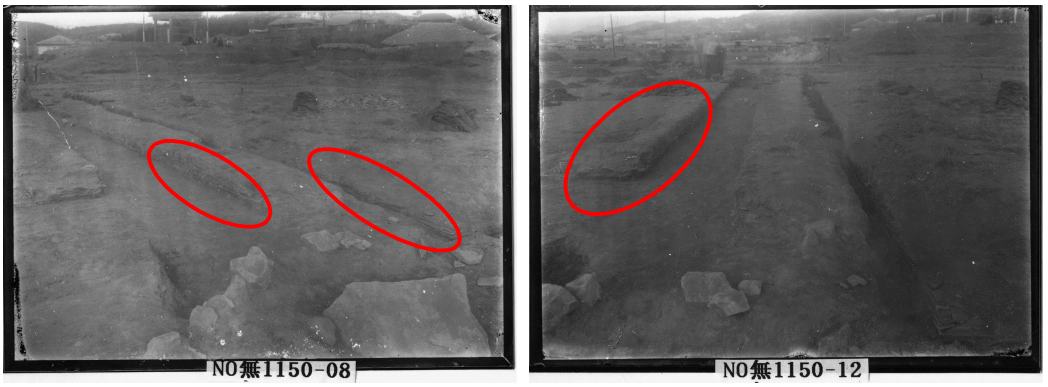
21) 후지사와의 발굴조사에서도 금당의 와적기단은 건물의 동남쪽 모서리 부근에서 아주 일부만 확인되었다. 조사 이후 복토와 정비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에 촬영한 것으로 동쪽에 있는 긴 와적기단은 강당지의 서쪽 끝에 해당하며, 와적기단이 2열인 것은 강당의 확장 흔적으로 보았다. 또한 [도판21-2] 속 서쪽에 있는 '⌟' 형태의 와적기단은 서건물지의 동남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도면과 사진을 통해 두 발굴조사 간에 차이가 확인되는 바, 동·서건물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 나아가 가람 구조와 사찰 조성연대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2)]



도판 20. 정림사지 발굴조사 평면도(좌: 1942년 후지사와 가즈오 조사, 우: 2008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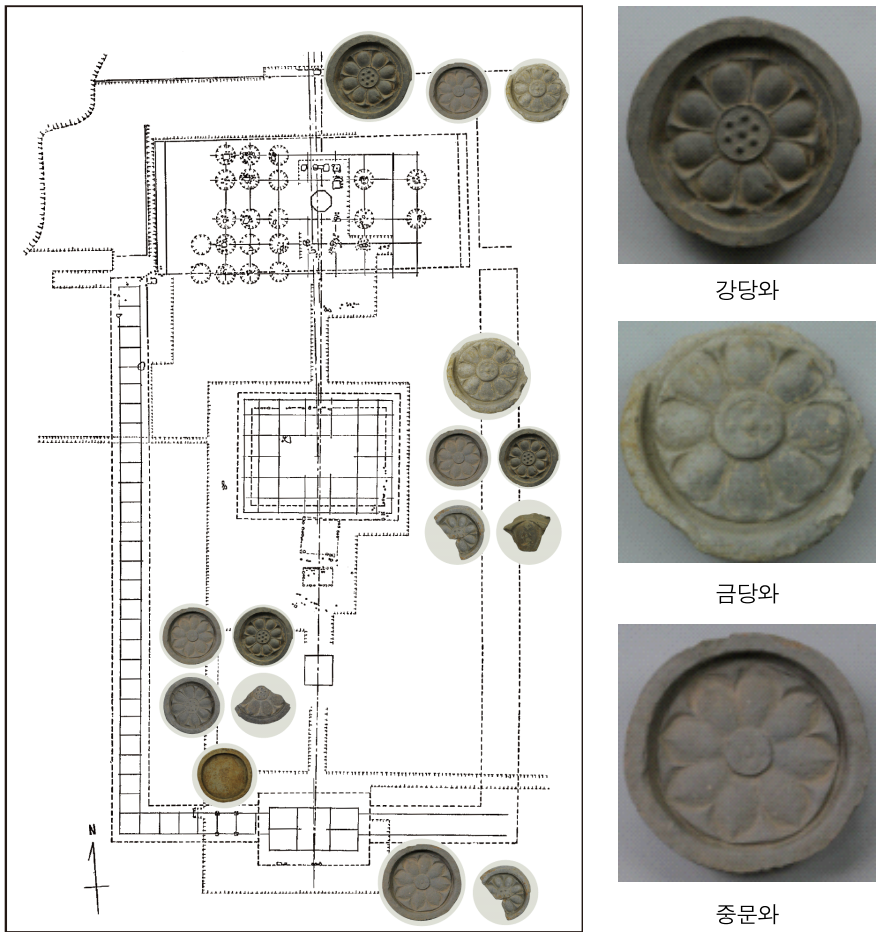
22) 광복 이후 정림사지 강당 서편 일대는 삭평과 훼손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92). 이는 1942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유적의 복토 및 정비 과정에서 유적이 훼손되고 유구 일부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후지사와 조사에서 확인된 금당의 와적기단이 충남대학교박물관의 재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였을 것이다. 따라서 훼손되기 이전의 유적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을 1942년 조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판 21. 1942년 촬영 정림사지 강당지와 서건물지 와적기단

후지사와는 백제 불교사찰로서 정림사지의 가람 배치와 각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다량 수습한 '대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명 기와를 토대로 사찰이 고려시대에도 활발히 운영되었음을 인식하였다. 그는 후속 논고에서 백제 시기의 강당이 폐기된 이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요遼나라 대평太平 8년(1028년)에 기존의 강당지를 재건하고 석조여래좌상을 안치하여 금당과 같은 대장전大藏殿을 재건하였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찰이 백제 시기에도 정림사라고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스카시대의 사찰과 연결시켰다.

후지사와 일기에서 '금당와金堂瓦', '강당와講堂瓦', '중문와中門瓦'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후지사와는 각 유구에서 특정 양식의 연꽃무늬 수막새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금당와는 금당지 출토 수막새, 강당와는 강당지 출토 수막새, 중문와는 중문지 출토 수막새를 지칭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정림사지 출토 수막새 가운데 출토 위치가 명확한 수막새를 유구별로 분류한 결과, 실제 금당지과 강당지, 중문지에서 특정 양식의 수막새가 높은 비율로 출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각각 후지사와가 파악한 금당와, 강당와, 중문와로 보인다(도판 22).



도판 22. 일제강점기 정림사지 출토 수막새 분포

이러한 양상은 금당지를 제외한 사역 전체를 재발굴한 2008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당지 동편과 서편에서 후지사와 조사의 강당와와 동일한 유형의 수막새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으며, 반대로 이 유형의 수막새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구도 바로 강당지이다. 따라서 사찰 내 건물과 수막새 유형 간에 상호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 건물 축조 시 특정한 유형의 수막새가 대규모로 제작·사용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건물의 성격을 반영한 것인지, 각 건물의 조영 순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건물의 보수나 중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수막새의 편년 설정과 분포 양상의 검토를 통해 이를 창건와와 보수와 등으로 구분하고 능산리 사지 건물의 건립 순서를 규명한 연구(이병호 2014:

209-216)도 있어 정림사지 출토 수막새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정림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수막새 가운데 오류로 밝혀진 것도 있었다. 이 수막새는 자방이 높게 돌출된 형태로 가운데 8개의 큰 연자가 있으며, 7엽의 연판은 끝이 넓적하고 연판 가운데에 꽃술과 같은 타원형 돌기가 솟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뒷면에는 사찰의 이름 없이 '금당', '중문'과 같은 출토 유구와 수습 날짜만 묵서로 표기되었는데, 모두 8월 31일, 9월 2일, 9월 18일 등으로 부소산 사지 발굴조사 기간에 해당한다. 실제 후지사와의 정림사지 발굴조사에서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이후 1979년 충남대학교박물관과 2008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재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 수막새는 후지사와가 부소산 사지 조사에서 다수 발견한 것으로(도판 12-2), 두 유적의 수막새 출토 양상과 후지사와 일기에서 확인한 조사 날짜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적인 출토 유물 정리 작업과 발굴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유적의 유물이 섞이거나 혹은 유물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Ⅴ. 마치며

후지사와 가즈오의 1942년 백제 사찰유적 발굴조사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학문적 순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여러 지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림사지 사역 전체를 조사하여 사역의 규모와 정확한 가람 구조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금당지와 강당지, 중문지 등만 조사가 되었을 뿐, 금당과 강당 좌우의 동·서건물지, 식당으로 추정한 북승방지 등은 건물지의 흔적만 확인한 채 조사를 완료하였다. 오히려 조사를 급하게 마무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는 애초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조선총독부와 충남도청이 추진한 정림사지 공원화 사업의 구제발굴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적의 중요성과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과 범위 안에서 발굴조사를 완료했어야 했다. 또한 박물관이 소장한 정림사지 수막새 가운데 1943년에 수습한 것으로 표기된 묵서도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이 1942년 이후 추가 발굴조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조사가 있었다면 어떠한 성격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긴 조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요네다 미요지의 갑작스런 죽음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후지사와 함께 부소산 사지를 조사를 마친 요네다는 이어진 정림사지 발굴조사에서도 고건축 전공과 오층

석탑 측량 경험을 살려 정림사지 유구 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기와를 전공하고 백제 사찰유적 발굴조사 경험이 많지 않은 후지사와가 조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림사지 발굴조사의 전체적인 일정 관리와 조사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요네다의 죽음은 일본을 떠나 한반도에 건너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후지사와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요네다는 다양한 부여 지역 백제 사찰유적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적 측면과 생활적인 부분 모두 후지사와의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충격을 받은 후지사와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급기야 며칠 간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총독부박물관은 스기야마 등을 급파하여 조사를 이어갔으나, 연내에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사역 전체의 면모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실시한 많은 백제 사찰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정식 보고서가 전혀 발간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도 다른 일본인 조사자에 비해 활발하지 않아 그가 실시한 발굴조사의 내용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 미발간으로 조사 결과를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조사 중에 생산한 여러 발굴 자료들도 대부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가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 일부만 파편적으로 전해질 뿐, 그가 일기에 기록한 1/200 평면도와 1/50의 상세도 등 많은 도면 자료와 사진, 출토품 일부가 자취를 감췄다. 많은 자료가 부여 체류 중 일본의 우메하라에게 보낸 서신과 함께 반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광복 이후 모두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우메하라는 자신의 논고에서 1945년 후지사와가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당시 조사한 모든 자료를 일본에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부여의 불교사찰유적 조사에 전념했던 후지사와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왔으며, 출간되지는 못했지만 일본인의 손에 의한 고적조사 사업의 결말을 장식하는 경하할 일이라고 칭찬하였다(梅原末治 1969: 147, 1972: 106-107).[23]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고적조사사업의 유물, 도면, 사진, 문서 등의 자료들이 대부분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파편화된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후지사와의 일기와 사진첩, 서신과 같은 조사자와 관련자의 비공식 자료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고적조사 자료를 보관 중인 대부분의 일본 기관과 연구자는 자료 열람과 정보 교류에 있어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3) 이병호, 2015: 3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으로부터 후지사와 가즈오의 1942년 일기 사본을 제공받은 것은 분명히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는 국립부여박물관과 유족간의 오랜 교류와 설득이 바탕이 되었으며, 유족 측도 뒤늦게나마 국립부여박물관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부친의 고적조사 활동이 재조명되고 학술성과가 공유되기를 기대하였다. 유족은 여전히 후지사와 가즈오가 남긴 많은 고고자료를 보관 중이며, 추가로 부친의 한반도 고적조사 자료를 한국 측에 인계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그가 남긴 많은 한국과 일본의 고고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며, 우선적으로 자료의 분류와 선별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 예산이 필요한 데, 유족측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족과의 지속적인 교류, 설득과 함께 방대한 후지사와 고고자료에서 한반도 고적조사 자료를 선별해 낼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인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지사와 가즈오 일기 사본의 확보와 활용은 국립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공개사업의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자료 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도 안겨주었다. 새로운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의 확보와 공개로 백제 불교 사찰유적 연구의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高正龍, 2004,「扶餘時代の藤澤先生」,『朝鮮古代研究』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扶餘 定林寺址』.

國立扶餘博物館, 2010,『百濟瓦塼』.

국립부여박물관, 2012,『扶餘 軍守里 寺址』.

_____, 2014,『扶餘 東南里 寺址』.

_____, 2015,『扶餘 定林寺址』.

_____, 2016,『扶餘 舊衙里 寺址』.

_____, 2017,『扶餘 扶蘇山 寺址』.

_____, 2018,『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_____, 2019,『扶餘 陵山里 東古墳群』.

_____, 2021,『扶餘 外里 遺蹟』.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58,『飛鳥寺發掘調査報告書』.

문혜진, 2021,「일제의 혼합민족설과 관폐대사 제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申光燮, 1996,「扶蘇山城-廢寺址 發掘調査報告」,『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文化財研究所.

서효원, 2018,「일제강점기 "보물 건조물" 수리공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논문.

朝日新聞, 1942. 9. 5.,「木造建築の壁畫」.

오영찬, 2011,「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韓國文化』55.

米田美代治, 1942,「夫餘 百濟五層石塔の意匠計畫」,『建築學會論文集』26, 建築学会,

梅原末治, 1969,「日韓併合の期間に行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學徒の回想錄」,『朝鮮學報』51.

梅原末治, 1972,『朝鮮古代の文化』, 國書刊行會.

李炳鎬, 2011,「日帝强占期 百濟 故地에 대한 古蹟調査事業」.

이병호, 2015a,「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식민지 고고학자」,『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의 재조명』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15b,「藤澤一와 定林寺址의 調査」,『扶餘 定林寺址』, 국립부여박물관.

_____, 2016,「식민지기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일본인 고고학자」,『한국고고학보』제98집.

石田茂作, 1937,「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전지혜, 2018,「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초기 조사와 탑신 명문에 관하여」,『한국고대사탐구』 28호.

朝鮮古蹟研究會, 1937,『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_____, 1938,『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_____, 1940,『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日報, 1939.6.19., 「부여를 大神都로」.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Ⅲ』.
_____, 1918, 「谷正古蹟委員復命書」, 『大正六年度復命書』.
_____,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總督府文書科, 1939, 「夫餘に官幣社創立」.
忠南大學校博物館, 1981, 『定林寺』.
藤澤一夫, 1949, 「百濟佛教遺蹟の研究」, 『人文』 3권1호, 人文科學委員會.
_____, 1971,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 8권2호, アジア文化研究所.
_____, 1995, 「百濟國都泗沘城と日本攝河國百濟郡」, 『激動の古代東アジア』, 帝塚山考古學研究所.
韓國文化財保存技術振興協會, 1992, 「한국건축보존공사회고」, 『韓國文化財保存攷-日政期資料集成 1』.

【Abstract】

Investigation of Baekje(Baekche) Temple Site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Kazuo Fujisawa

Jeong Hyun*

The excavation of Baekje(Baekche) Buddhist temple sit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began in 1935, with Ishida Mosaku's investigation of the Gunsu-ri temple site in Buyeo(Buyŏ). While Fujisawa Kazuo stayed in Buyeo(Buyŏ) from 1942, he excavated many Baekje(Baekche) Buddhist temple sites. However, reports of these excavation were not published,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ctual nature of the excavated artifacts. Accordingly, the Buyeo(Buyŏ) National Museum obtained copies of his diary, photo albums, letters, and follow-up notes as part of the initiative to enhance public assess to data acquir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raced the contents of his 1942 excavation of Baekje(Baekche) Buddhist temple sites in Buyeo(Buyŏ). Based on the information found in these unofficial materials, this article follows his journey to Buyŏ and examines the process, conten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is investigation of the temple site in Busosan and the Jeongrim Temple site (Jŏngnim Temple site). In addition, through a cross-examination of official document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dry glass plate photographs, drawings, and excavated artifacts, which have remained in a fragmentary state, it has become possible to lay the groundwork for more advanced discussions.

Key words :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Baekje(Baekche), temple sites, Jeongrim Temple site (Jŏngnim Temple site)

* Associat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